9강 - 제3세계 영화 (1)

'제3세계 영화'라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3세계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제3세계권, 지금은 '제3세계'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만, 1950년대 중반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경제학에서의 종속이론, 또 55년도에 반둥회의에서 범주화되어 처음 거론된 이후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유행했던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고, 정치 블록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제3세계 영화' 또는 '제3영화'라는 말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50년대 중반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된 개념이고요.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중심 역사관의 변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이 대두됐던 그런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아시아. 중남미.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제3세계권'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의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말합니다.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영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들 국가에 새로운 영화가 태동을 한 것은 뉴시네마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보면 대량 생산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독립영화, 인디펜던트로 전환되는 시기하고도 일치합니다. 그 시기에 제3세계권의 영화적 활동은 유럽이나 헐리우드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제3세계 영화를 통해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 자체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3세계 영화의 개념은 형평하지 못한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영화적인 저항이고 발언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3세계'

그 당시에 '제1세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세계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2세계'라는 계획 경제, 중앙 통제 경제를 말합니다. 사회주의 정권이나 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계획 경제를 추종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 그 당시엔 중공이라 불렀죠. 쿠바라든지 동구라파 국가들이 제2세계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는 두 가지 경제 모델이 혼합되어 있고요. 자본주의거나 사회주의 경제거나 혼합이 되어 있거나 혹은 어느 한 쪽이지만, 중요한 것은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식민지로 인해 현재에 저개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 혹은 지금도 식민지 상태인 나라들이 바로 '제3세계' 국가들인데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말합니다.

이 '제3세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문화적인 종속이라든가, 전통문화의 파괴, 정치적인 부패, 독재 정권이 상당히 많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난과 경제적 착취 .. 이런 것들이 '신新식민주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데요. 바로 이런 신식민

지 경험들이 서구-유럽이나 미국으로 주류되는 세계사 흐름의 어떤 한 부산물이었다는 것에서 각성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제3세계' 영화의 문제제기는 가장 절실한 현실 타개와 대안을 제시하게 됐고, 권력의 상부층과 밑바닥 대중들과의 사이를 좁히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제3세계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소비.오락으로서의 영화가 아니고 '문화 건설 영화'로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사회가 건강하게 개혁되고 역사 발전되는 그런 과정의 참여자로서의 영화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의 제3영화

이런 제3세계 영화가 사실, 처음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195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영화들이 나타나면서 헐리우드와 유럽 영화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점차 퍼져나가게 되죠.

이 '제3세계 영화'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 이런 나라들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3세계 영화의 실철적 활동 이면의 이론적인 토대도 완성됩니다. 몇 가지 이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3영화' 주창이 있습니다. 이 '제3영화'라는 주창은 1969년 아르헨티나 영화 감독 페르난드 솔라나스Fernando E. Solanas와 옥타비오 게티노Octavio Getino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이 '제3영화'라는 것은 제3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화적 활동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헐리우드 중심의 소비적이고 오락적인 영화를 '제1영화'라고 규정을 했고, 그보다는 현실 인식을 갖지만 유럽적인 개인 중심적인 작가예술 영화를 '제2영화'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누벨바그 영화나 서유럽의 뉴시네마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이러한 두 가지 영화적 흐름이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사회 변혁의 수단과 과정으로 참여하는 혁명적인 영화를 '제3영화'라고 지칭을 합니다. 제3세계에서는 '제1영화'나 '제2영화'보다는 '제3영화'를 만들고 많이 보급하고 대중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3영화'를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아르헨티나의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La Hora de Los Hornos>(1968)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크게 3부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부'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신식민주의와 폭력>이라는 표제 아래 전개되는 약 1시간 반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입니다. 아르헨티가 국제적으로 유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역사 구성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는 그 당시에 6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솔라나스와 옥타비오 게티노가 주도했던 "해방영화집단"에서 공동 제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또 투쟁으로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가 또 그만한 여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중들에게 은닉된, 숨겨진 역사의 이면을 알리고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줬고, 그러므로 인해서 민중들이 단결하는 계기를 주었고, 아르헨티나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화로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들이 독재 정권 하에서 한가하게 소비적이고 오락적인 영화를 감상할 것이 아니고, 현실의 모순을 각성하고 느끼게 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시대적인, 사회적인 맥락하고 일치하는 영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과 쿠바, 볼리비아

브라질도 역시 군사 독재가 몇 십년 동안 장기화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브라질의 영화 감독 글라우버 로샤Glauber Rocha에 의해서 제기 된 "배고픔의 미학"은요, 브라질의 영화 운동인 '시네마 노보'-'새로운 영화'운동이죠. 이 '시네마 노보' 운동의 맨 첫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보통 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맨 첫 단계로 '가난한 영화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가난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제3세계의 민중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자.'는 의식으로 제창한 미학입니다.

글라우버 로샤는 브라질의 새로운 영화가 가난한 민중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래에 그려온 좋은 집, 좋은 차, 산업 사회의 부와 가치...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즐거운 오락 영화 대신에, 굉장히 찌들려 있고 피폐하고 가난한 그런 현실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영화들을 속속들이 발표하면서 바로 그러한 영화적 실천을 대변할 수 있는 영화 이론을 "배고픔의 미학" 또는 "고통의 촬영술"로 정의하면서 브라질 영화계를 끌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던 쿠바, 이 쿠바의 경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왜 '제3세계'권에 들어가냐면 바로 식민지 경험 때문입니다.. 쿠바의 훌리오 가르시아 에스피노사Julio Garcia Espinosa라는 감독은 1969년도에 "불완전한 영화"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영화가 완전한 완성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인데요. 기술이나 예술적인 측면 보다는 현실 문제가 완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성과 영화의 예술성.기술성을 대비 시킨 측면에서 "불완전 영화"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즉, 완전한 영화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술이나 예술적 측면 이전에, '자국의 사회 발전과 현실에 부합되고 기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 인식에 충실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토마스 쿠티에레즈 알레아Tomas Gutierrez Alea, 빠뜨리시오 구스만Patricio Guzman(패트리시오 구즈먼) 등이 있습니다.

알레아 감독은 <저개발의 기억Memorias Del Subdesarrollo>(1968)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주목할만한 작품들을 만든 쿠바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이 외에도 볼리비아라든가, 칠레, ... 아까 말씀드린 패트리시오 구즈먼 감독 같은 경우는 칠레 감독이죠. 칠레, 페루 .. 멕시코 ..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유명한 감독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 제3세계 영화가 주력해 온 양식을 보면, 헐리우드나 유럽의 작가 영화를 상당히 탈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역사적으로 40년대 중반부터 이태리에서 나타난 네오리얼리즘의 미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네오리얼리즘과 제3세계 영화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스튜디오식의 촬영이라든지 허구적인 이야기구성 보다도 실제 현실과 거의 흡사한 기록영화적인 세팅과 이야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기록 영화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드라마보다는 역사나 현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비판의식과 문제제기 그리고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 영화는 결정적으로는 쿠바혁명, 쿠바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사회주의화 되는 과정에서-반독재, 반전체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독재를 전복시키는 혁명의 성공과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착취를 벗어나려는 민족해방 투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쿠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의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의 영화 전통을 세워나간 역사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 영화를 '민족해방 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민중 영화, 민족 영화, 해방 영화, 혁명 영화, 그리고 제3영화 ...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식민주의에 대한, 60년대의 중남미 상황을 대변하는 이들의 자국 영화는요, 이후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또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른 제3세계권의 영화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적인 활동이 서구의 영화들 보다도 제3세계권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한 동안 발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타는 시간> 분석

이 제3세계 영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페르난도 솔라나스와 옥타비오 게티노의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를 통해 제3영화론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는 1부,2부,3부로 되어있습니다.

1부는 <신식민주의와 폭력>이라는 표제 아래 아르헨티나가 국제적으로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그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영국의 금', '이태리의 수공업', '프랑스의 서적들' 이러한 상징적인 자막이 깔리면서 현실에 침투에 있는 서구 문물의 현상을 추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상의 폭력'이라든가 '문화의 종속' 이라는 자막 아래에서는 각 직장에서 매일 행해지는 부당한 차별대우 등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는 <해방을 향한 행동>이라는 표제 아래, 페로니즘의 역사를 통해서 1946년부터 10년간 영위해온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를 재조망하고 저항의 역사에서 페론의 망명 이후 국내에서 행해졌던 각종 저항의 사례를 총집결 시키고 있습니다. 이 페론은 아르헨티나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페론과 에비타의 이야기가 아르헨티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열망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페론은 군인이긴 하지만, 원래 군인 출신으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군사 정부, 군사 독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페론은 아르헨티나의 민중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군인이긴 하지만 다른 군사 정부와는 다른 정치적 개혁을 단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가 행한 것 중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많은 것들이 미국 언론의 시각에서 그를 독재, 군사 독재의 표본처럼 여론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그 페론을 지지했고 심지어는 페론의 뒤를 이은 에비타까지도 지지하는 시민정신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그러한 아르헨티나적인 시각과 미국 서방 언론의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민중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요. 페론은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폭력과 해방>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요. '중남미에서 서구 세력을 벗어나서 자주적인 모습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인터뷰와 기록, 증언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어집니다. 자, 이 영화는 제3세계 영화의 한 방향으로서 상당히 실효를 거둔 작품으로서 아주 상징적인 제3세계 영화의 대표작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좋게 평가 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교육 영화'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영화적 현상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역사적으로 왜곡되어 왔던 실상을 낱낱이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최상의 기록물로서 이 영화는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요.

또한 기록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하고-나레이션이 나오고, 일상적인 장면이 나오고... 기록영화의 뻔한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 영화를 극영화 보다도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비해 이 영화는 굉장히 전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와 영상이 충돌 한다든지, 소리와 영상이 충돌한다든지, 커팅의 전환이라든지 영화적인 패러디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현대 영화의 실험적인-아주 전위 영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기록 영화가 다 있나'하는 새삼스러운 감회에 젖게 되는 그런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신식민주의와 폭력>이라는 제1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분간의 롱테이크 장면은 체 게바라-아르헨티나 사람으로 당시에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볼리비아의 산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체 게바라의 죽은 얼굴을 관객에게 보여주는데 5분 동안 화면을 고정시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영화사상 유례없는 인상적인 롱테이크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체 게바라의 죽음은 곧, 아르헨티나의 민중뿐 아니라 제3세계 민중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상징처럼 되어있었는데요. 지금도  체 게바라가 다시 부활

되고 체 게바라의 혁명 정신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 게바라가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었고 그 죽음을 알면서도 실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중들의 심리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체 게바라의 죽은 얼굴이긴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5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눈을 감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관객들은 체 게바라가 살아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종래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대단히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서 관객에게 현실의 각성, 자기 결단력을 촉구하는 그런 놀라운 영화적인 장치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제3세계 영화가 아주 거칠고 투박한 것만이 아니고, 상당히 세련되고 실험적이기 까지 한, 서방 영화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영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제3세계 영화 운동의 가장 극렬하고 모범적인 영화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아르헨티나 '해방영화 집단'이 1969년에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영화와 더불어서 「제3영화를 위하여」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제3영화론'이 구체적으로 표명이 됩니다. '제1영화'와 '제2영화'를 뛰어 넘는 민족해방 영화, 그리고 혁명 영화로서의 '제3영화'가 제3세계 현실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영화 작가들이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대부분 가혹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후에 유럽으로 망명하게 되는 불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민주화 되는 여정에 있어서 이 이론은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 상황과 밀접화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와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영화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와 맞써 싸우는 방법론으로써 당시에 수용됐던 정치론-모택동, 호지명, 체 게바라 등이 실천해온 게릴라 전술이 아르헨티나 영화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제3영화를 스스로 "게릴라 영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게릴라 영화"는 도발적인 영화를 지칭할 때에 미국에서도 사용합니다. 독립 영화인들을 게릴라 영화 작가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혁명 사상가들이며 실천가들, 특히 게바라의 게릴라 전술과 같이 영화계 내에서 많은 활동을 가졌던 영화적 실천을 말하고 그것의 이론적 토대가 바로 '제3영화론'입니다.

이들이 파악한 제3세계 사회상 및 문화는 선진 제국에 의해서 착취되고 왜곡돼서 자기 주체성이 없는 무국적한 서구 문화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될대로 심화된 가난한 나라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식민주의적 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영화 활동이 전개 된 것입니다. '제3영화론'에 의하면 영화는 대중을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카메라라는 것은 영상 무기를 끊임없이 수용하는 탄창이고, 영사기는 초당 24발의 프레임을 총알처럼 날려버리는 기관총이다."는 유명한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는 미국, 유럽의 사치와 유행과 같은 서구식 대중문화를 기관총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식민주의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극렬한 영화적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현대 민주화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에서 현실과 영화적 삶의 성찰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보여준 영화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3세계 영화 활동은 '제3세계'라는 경제 블록이 와해된 지금은 그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그 정신이 다른 식으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죠.

제3세계 영화를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종래의 영화사, 1895년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중심의 서구 중심의 영화사가 50년대 중반 이후에 각성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는 곧 자본주의의 역사고 상품과 시장의 역사였는데, 이 '제3세계 영화'에 와서는 "삶의 투쟁으로서의 영화" 라는 측면, 서구 제국주의에서 다시 쓰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으로서의 영화" 라는 측면으로 대중들에게 영화사를 완전히 서구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세계 영화'는 현대 영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3세계 영화'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헐리우드 영화', '프랑스 영화', '이스라엘 영화', '이란 영화', '한국 영화' ... 이렇게 자국적인 영화로서 가치를 동등하게 갖는, 과거에는 "헐리우드 영화=표준 영화 / 그리고 변방 영화"로 획일화된 구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 나라의 영화들이 갖는 고유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도 이제 하나의 영화일뿐이죠. 모든(표준) 영화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제3세계 영화가 세계영화사에 기여한 바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